



## 북유럽의 별 문양 셀부로세

여덟 개의 꼭짓점을 가진 별은 세계 곳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문양이다. 하지만 노르웨이인에겐 그들이 '셀부로세'라 부르는 별 문양이 자신들의 고유한 유산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풍성하다.

# NORTH STAR

The eight-pointed star is a motif that has been used throughout the world for centuries, but Norway has reason to claim what it calls the *selburose* as its own.





꼭짓점이 여덟 개인 별은 아주 오래된 문양으로 전 세계에서 발견된다. 수메르 신화에서 풍요의 여신인 이난나를 상징한 이 문양은 석조 조각상이나 모자이크 곳곳에서 나타난다. 또한 털실로 짠 13세기 스페인의 베갯잇에도 그려져 있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이슬람의 장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권에서 그 별무늬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이 지긋한 노르웨이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그 별무늬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믿는다. 노르웨이인에게 별 문양은 독립의 상징으로 1814년에는 덴마크로부터, 1905년에는 스웨덴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쟁취해낸 기억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별 문양이 이토록 노르웨이 사람들의 마음에 강렬하게 각인된 사연은 이 나라의 한 지방인 트뢰넬라그에서 시작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옛날 노르웨이 중부 트뢰넬라그 지방 남쪽 셀부의 농장에는 ‘마리트’라는 이름의 젖 짜는 아가씨가 살았다. 농장에서 가축의 젖을 짜던 다른 처녀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마리트는 단색 털실로 뜬 병어리장갑을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흰가 색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어진 마리트는 검은색과 흰색 털실을 이용해 화려한 별 문양이 새겨진 병어리장갑을 만들었다.

The eight-pointed star is an old pattern, found throughout the world. It was a symbol of the Sumerian fertility goddess Inanna, rendered in carved stone or mosaic. It showed up in 13<sup>th</sup>-century Spanish knitted pillows and 17<sup>th</sup>-century Persian carpets. It has been claimed by Estonian, Icelandic and Islamic artisans. And yet, in the hearts and minds of some older Norwegians, it is their own — a mark of independence, a poignant reminder of their country’s breaks, first from Denmark in 1814, then from Sweden in 1905.

How the star came to occupy such hallowed emotional territory begins with a story from the country’s Trøndelag region. Once upon a time, the story goes, in the fertile farmlands of Selbu there lived a milkmaid named Marit. Like her fellow milkmaids, and everyone else in the region for that matter, Marit made mittens for herself using just a single color of yarn. But one day, compelled to break with tradition, she knit up a pair of mittens using black and white yarn, which she fashioned into a lively star pattern.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가지 색을 이용한 별무늬 병어리장갑은 전통적인 인기를 끌며 셀부 전역으로 퍼졌다. 뜨개질을 제법 하는 사람들은 더욱 화려한 모양의 별무늬를 경쟁적으로 선보였고, 그 무늬에 자신이 일하는 농장의 이름이나 양뿔, 거미, 커피콩 등 일상적인 사물의 이름을 붙였다. 머지않아 ‘셀부의 장미’ 혹은 ‘셀부의 별’이라는 의미를 지닌 ‘셀부로세’ 문양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장(紋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실 셀부로세는 마리트가 그 유명한 병어리장갑, ‘셀부보테르’를 만들기 이전부터 셀부 주민에게 이미 친숙한 문양이었다. 흑백으로 표현한 꼭짓점 여덟 개의 별무늬는 세례를 받는 아기나 장례식 때 관을 감싸는 담요에 새겨져 사랑과 부활의 의미를 상징하곤 했다. 또한 별 문양은 셀부뿐 아니라 노르웨이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편물(編物)에도 두루 이용되었다.

세테스달 지역에선 목둘레선과 앞여밈에 리본 모양으로 수를 놓은 아주 복잡한 문양의 흑백 스웨터인 ‘루세코프테’의 가장자리에 이 별 문양이 활용됐다. 파나 지역에선 두 가지 색상의 ‘파나코프테’ 카디건의 어깨 부분을 가로지르는 별무늬가 특징이었다. 그렇지만 별무늬를 이처럼 뜻깊은 문양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뭉니 뭉니 해도 셀부의 병어리장갑이다.

Soon, a fad for two-color, star-patterned mittens spread through Selbu. Every knitter tried to outdo the others with their own dazzling variation, claiming it as their own by naming it after the farm they lived on or even mundane objects like rams’ horns, spiders or coffee beans.

What is now referred to as the *selburose* emerged as the region’s most famous folk pattern. It was hardly unknown to Selbu’s residents before Marit conjured it in those iconic mittens (*selbuvotter*), though. Eight-pointed stars were a feature of woven coverlets that were wrapped around babies when they were baptized and around coffins at funerals, meant to evoke both love and rebirth. The star also developed independently of Selbu in other regions of Norway. In the Setesdal district, it decorated the borders of *lusekofte*, black and white sweaters with intricate patterning and richly embroidered ribbons at the collar and front opening. In Fana, it jogged across two-color Fanakofte cardigans. But it was selbuvotter that launched the eight-pointed star to unprecedented significance.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별 문양은 노르웨이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아래). 유서 깊은 편물 전통을 자랑하는 노르웨이에서 별 문양은 ‘셀부로세’라 불리며, 스웨터나 병어리장갑 등에 흔히 사용된다(오른쪽, 오른쪽 페이지).

Though it is found throughout the world, the eight-pointed star has a particular connection to Norway, where it is known as the *selburose* (below). The country has a long knitting tradition, and, unsurprisingly, the pattern is often used on sweaters and mittens (right, opposite).







**독립의 상징** “스웨덴으로부터 분리될 당시, 노르웨이가 진정한 독립국으로 인정받으려면 독자적인 정체성과 역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노르웨이 편물 역사가이자 세테스달에 위치한 작업실에 수많은 편물 컬렉션을 소장한 안네모르 순비의 말이다. 순비는 “그래서 노르웨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문화유산을 살살이 조사했다”며 “전국에서 사용되는 편물 디자인을 모아 오슬로 소재 노르웨이 민속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중에는 셀부로세로부터 파생한 문양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병어리장갑에만 쓰이던 이 문양이 차차 모자, 스타킹, 스웨터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이 별무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등장한다. 노르웨이 국가대표 스키팀의 스웨터에도 별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1956년부터 노르웨이 의류 회사인 데일오브노르웨이가 제작해왔다. 노르웨이의 소도시나 시골에 거주하는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별무늬가 새겨진 옷을 자랑스럽게 입고, 순비 역시 루세코프테를 비롯해 다양한 별무늬가 수놓인 의류를 즐겨 입는다. “우린 이 별 문양을 ‘우리 별’이라고 불러요.” 순비의 말이다.

**MARK OF INDEPENDENCE** When Norway broke with Sweden, “In order to be truly independent, it was important to show that Norway had distinct national identity marks,” says Annemor Sundbø, a historian of Norwegian knitting who maintains a huge collection of it at her workshop in Setesdal. “Everything that had roots in Norwegian heritage was dug up, and the knitted designs that were used all over the country were collected in the Norwegian Folk Museum in Oslo.” Among them were many variations of the selburose, which had begun spilling over from mittens onto hats, stockings and sweaters.

These days, the star still pops up all over the place. It sometimes decorates the Norwegian national ski team’s sweaters, which have been made by Dale of Norway since 1956. The older generation living in country towns and villages sports the star without irony; Sundbø herself is a dedicated wearer of lusekofte and other star-flecked designs. “We still talk about the star as our star,” she says.

But, says Siri Johansen, a knitwear designer for French

프랑스 패션 브랜드 겐조의 편물 디자이너인 시리 요한센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오슬로 외곽에서 자란 그녀는 요즘 노르웨이 젊은이들이 셀부로세를 일종의 우스꽝스러운 모방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별무늬는 노르웨이의 어디서나 흔히 접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별무늬와 함께 자란 셈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티셔츠나 가정용품, 관광상품 같은 데까지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안내 책자나 로고에도 사용되고요. 국가 유산과 관련된 장소에는 온통 별무늬예요. 고유의 의미나 정신이 무색할 만큼 과도하게, 함부로 사용되는 감이 있죠.”

그럼에도 노르웨이 청년들은 미국이나 유럽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자신들의 문화가 담긴 예술품과 공예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셀부로세 스웨터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노르웨이 방직사 생산업체 산네스가른은 이러한 현상에 반색하며 털실은 물론, 전통적인 별 문양에서 파생한 다양한 문양까지 개발하고 제품에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요즘 들어서 젊은 멋쟁이들은 빈티지 별무늬 스웨터를 찾아 중고의류 매장을 순회하기 시작했다. 요한센은 “니트 점퍼가 다시 유행하는 건 ‘노멀’과 ‘하드코어’의 합성어로 평범함을 추구하는 패션 흐름인 ‘놈코어’ 열풍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가급적 셀부로세를 반영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요한센은 “내게 있어 셀부로세 문양은 너무 친숙할 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고, 전통적이라고 느껴져 자칫 뻔한 디자인이 만들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fashion label Kenzo who grew up outside Oslo, younger Norwegians have come to view the selburose as something of a parody. “It’s everywhere in Norway; you grow up with it,” she says. “But it’s started showing up printed on T-shirts and household goods and touristy things. It’s in brochures. It’s used in logos. You see it any place that has to do with national heritage. It’s overused.”

Still, as with their counterparts in the US and Europe, young Norwegians have lately come to embrace the art and craft of handmade goods. This includes hand-knit selburose sweaters. The 128-year-old Norwegian yarn company Sandnes Garn has happily indulged this proclivity, supplying raw materials and patterns that update classic star designs.

The young and hip have also started trolling secondhand shops for vintage lusekofte and Fana sweaters. “It’s part of the whole normcore wave, with knitted jumpers coming back into fashion,” says Johansen. For her part, though, Johansen has made a conscious effort to never feature a selburose in her designs. “It’s too close to me, too recognizable, too traditional and, therefore, too noticeable,” she explains.

But in the pristine countryside of Selbu, where there



**셀부 민속박물관에서는 신부가 남성 하객들에게 셀부로세 문양의 병어리장갑을 선물하던 전통을 엿볼 수 있다(왼쪽 페이지). 마을 곳곳에서 건물들을 장식한 셀부로세 문양 역시 볼 수 있다(왼쪽).**

**The Selbu Folk Museum (opposite) explains how brides once gave mittens featuring selburoses as gifts to male wedding guests. The selburose decorates buildings throughout town (left).**





셀부로세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은 셀부의 거대한 트롤 조각상(위).  
노르웨이 셀부는 셀부로세가 유명세를 타게 된 설화의 배경이다.

**A troll statue in Selbu wears a full set of selburose-patterned clothing (above). The town popularized the selburose when, according to legend, a milkmaid named Marit knit the star into a pair of mittens.**

최신 유행과는 동떨어진 셀부에서는 그곳 지명에서 유래한 셀부로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현지 슈퍼마켓 홍보에 이용되는 북유럽 전설에 등장하는 괴물, 트롤의 거대한 조각상은 병어리장갑, 양말, 스웨터에 이르기까지 온통 별무늬 일색의 의류를 걸치고 있다. 셀부 민속박물관을 찾아가면 별무늬 카디건을 걸친 안내원들이 기다리고 있고, 편물 역사 전시실에는 신부가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남자 하객들에게 직접 뜬 병어리장갑을 선물하던, 지금은 사라진 옛 관습이 소개되어 있다. 또 화려한 빛깔로 채색된 시내 상점이나 공공기관의 벽면은 셀부의 문장, 다시 말해 은색 방패 바탕에 검은색 셀부로세 세 개가 새겨진 표지(標識)로 장식되어 있다.

글 릴라 너지 사진 롤라 아킨마데 오세르스트림

is nary a breath of hipster culture, there is a certain pride in the star the region gave name to. At the Selbu Bygdemuseum (folk museum), visitors are greeted by guides wearing starry cardigans, and exhibitions on the region's rich knitting history explore now-defunct customs like brides giving away hand-knit selbuvotter to every man attending their weddings. Birgitta Odén, the museum's director, drives a car whose seats and headrests are covered in selburose-patterned knits. A tiny pair of selbuvotter dangle from the rearview mirror.

Elsewhere, a giant figure of a troll advertising a local supermarket is replete with full selburose regalia — mittens, stockings, sweater — while another statue depicts a mother teaching her daughter how to knit a selburose pattern. And throughout town, the brightly painted clapboards of shops and municipal buildings are decorated with Selbu's crest: three black selburosses on a field of silver. By Lela Nargi Photographs by Lola Akinmade Åkerström